

## 사랑과 열정에 대해



김인식

(주)체리부로 대표이사 회장

축산전공으로 대학 공부를 마치고, 생활인으로 사회에 뛰어들어 뒤 앞만 보며 지금껏 달려 온 세월이 어느새 50년을 훌쩍 넘어 버렸다.

필자가 신입생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한 1960년대 초의 대한민국은 2014년 오늘날과는 여러 면에서 비교자체가 힘들다.

어릴 때부터 동물 사육에 관심이 많았기에 자연스레 축산 전공을 선택하고, 일생의 업으로 한 길을 걸어 왔으며,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과정을 지켜보며 그 한 가운데에서 산 증인의 일인으로 나름 자부해오고 있지만 학업을 마친 그 시대에는 진로에 대한 선택권이 지금과 같이 다양하지는 않았다.

'6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90달러로서 2013년의 2만 4천 달러와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지만 그 보다 더욱 큰 변화는 사회와 그 구성원의 다양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회사 또는 외부에서 30~40대의 젊은 연령대를 만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가끔 놀라기도 한다. 그만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각 개인들 또한 자기만의 뚜렷한 가치관과 주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부럽기도 하다.

살아 온 날이 더 많다고 여겨지기에 아무래도 옛날과 대비하여 비교하고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필자의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그 때에도 지금처럼 다양한 선택과 다양한 사고와 시각, 경험이 수반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대학 시절, 농업입국을 꿈꾸며 뜻을 같이 하는 선·후배들과 함께 열띤 토론과 농업 현장에서 청춘을 불사르겠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수없는 밤을 함께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그 때의 그 열기가 솟아올라 내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느낌이 든다. 20대의 나를 뜨겁게 만들고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온 원동력의 하나는 바로 열정이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 하나로 매사에 겁 없이 달려들었고, 실패해도 열정이 있었기에

새로운 도전이 어렵지 않았으리라.

축산관련 기업을 이끌고 있기에 현역에서 때로는 물 흐르듯 때로는 전쟁을 치루듯 다양한 일과 업무의 흐름 속에 있는 필자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는 것은 사랑이 아닐까 한다.

특히 지난 1월 17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래 험난한 상황의 중심에 있는 필자로서는 사랑의 위대한 힘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사랑과 열정’, 얼핏 광고 문구 같기도 하고 TV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며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진부한 소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더 없이 소중한 가치이자 덕목이 아닐 수 없다.

가족에 대한 사랑, 나를 아끼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동료에 대한 사랑, 나의 일터와 일에 대한 사랑, 이러한 사랑이 항상 내 가슴을 채우고 있기에 오랜 세월동안 달려올 수 있었을 것이다.

마음만은 아직도 청춘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나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릴 적 친구들이나 지난날의 동료들을 보게 되면 함께 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힘들었거나 즐거웠던 일들이 모두 소중한 모습으로 간직되어 옛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을 보며 필자 역시 세월을 피해갈 수 없음을 절실히 느낀다.

고속성장을 거듭해 온 우리나라도 어느덧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저 출산, 인구 노령화, 잠재성장률 저하, 청년실업이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가족, 이웃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현재 취업을 앞둔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끌고 갈 세대에게 더욱 커다란 짐이 되기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인재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고속성장과 더불어 축산업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물론 사육환경 개선, 산업구조 선진화 등 나아갈 길이 멀지만 기술적인 기반이나 산업기반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축산업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일구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선배들과 지금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축산업과 농업은 과거의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중요한 첨단 산업의 하나로서 전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의 기로에서 축산업에 몸담고 있는 필자를 비롯한 업계의 모든 분들은 축산인으로 충분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과 국내 식량자원의 보루인 축산업 경쟁력 확보, 첨단 축산업으로의 도약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사랑과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축산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의 행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